

경제 35번·성장 29번 언급... ‘고용’이 바꾼 정책기조

혁신 21번 거론... 혁신성장 무계 올해는 정부 경제정책 체감 목표 일자리창출·경제성과 총력 예고

“부정적인 고용지표, 아픈 대목 혁신 등 新성장동력 마련할 것”

“경제정책 변화는 두려운 일이지만... 정부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문 대통령 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였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올해는 국민들에게 필히 긍정적인 경제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문 대통령이 피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때 경제를 총 35번 언급했다. 이는 모두발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때 경제는 9번만 언급됐을 뿐이다.

문 대통령이 경제 다음으로 많이 언급한 단어는 ‘성장’으로 총 29번 거론됐다. 성장 다음으로는 ‘혁신’을 총 21번 거론했다. 성장과 혁신은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깊은 단어다.

문 대통령이 경제와 성장, 혁신 등을 거론한 배경에는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청와대

연관이 깊다. 통계청은 지난 9일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 수는 2682만 2000명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9만 7000명 증가한 수치다. 다만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009년 이후 최저치다. 2009년 당시에는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 증가 폭이 8만 7000명에 그쳤

다. 고용동향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성과를 국민 앞에 선보이지 못한다면, 취임 전 국민들과 약속한 ‘일자리 대통령’ 발언이 무색해지게 된다. 문 대통령 역시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래서인지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 중소기업-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성과 의지’는 모두발언 후 진행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 때도 계속 돋보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역대 정부에 비해 고용상황이 안 좋다”는 취재진 질문에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우리 정부로서 아픈 대목이다. 이를 극복하는 게 우리 정부의 과제”이라며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다.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전통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벤처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경제 투자 행보도 지속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경제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북과 경북·경남을 다녔다. 앞으로도 다닐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성과 의지를 피력하자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위원장은 10일 정책조정회의 때 “언론인들은 문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제대로 보도해달라”며 “당은 금일 오후에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후에는 노동단체를 비롯한 우리 사회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과의 간담회를 이어서 계속 진행할 것임을 알린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배한남·석대성·홍민영 수습기자
dn1114@metroseoul.co.kr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말말말’

“고용지표가 부진했다”,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습니다.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상응 조치들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친서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성의 있는 친서였고,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우리 국민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친서 공개를 사전에 알리고 필요한 만큼 공개했습니다.”

“남북경협은 북한 퍼주기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국제제재가 해제돼 북한 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 건설이 되면 아마 중국을 비롯해 여러 국제 자본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그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본 정치인들, 또 지도자들이 자꾸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나가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엔 자주 만나길”... 北에 친서 보낸 文 문 대통령, 사회자 없이 직접 진행

남북관계

김정은 ‘답방 불발 양해’ 친서 답장 이례적으로 국민에 내용 일부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친서’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긍정적인 남북관계를 골자로 한 친서를 주고 받았다. 이를 비취볼 때 올해 남북관계는 더욱 내실 있게 구축됨은 물론, 한반도 항구적 평화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가늠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출입기자단으로부터 “김 위원장이 ‘올해에도 자주 만나자’ 서울 답방 불발이 아쉬웠다’ 등 친서를 보냈다. 대통령은 어떤 내용을 담아 답장을 보냈나”라고 질의하자 “우선 남북간 친서 교환은 필요하면 주고받는다”며 “특사가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경우 외에는 친

서를 보내고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다. 설사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만 제가 지난번 (김 위원장에게서) 받은 그 친서는 조금 특별했다. 우선 대단히 성의 있는 그런 친서였고, 연내 답방을 못한 것에 대해 아주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또 새해에 자주 만나기를 바라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서 우리 국민들이 그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북한에게 그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 하겠다,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일부 공개 하겠다고 사전에 알려주고 필요한 만큼 공개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도 성의를 다해서 친서를 보냈다. 그 내용을 또 제가 밝히기는 어렵다. 어쨌든 그런 친서들을 통해서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에 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또 비핵화에 있어서도 더 큰 폭의 더 속도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다자협상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우리는 1954년(실제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은 원래부터 예정돼 있던 것”이라며 “그 6개월 이내 평화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평화협정을 함으로서 모든 전쟁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정전협정만 체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채 수십년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지금 평화협정 체결도 비핵화와 연계가 됐기 때문에 비핵화 끝 단계에 이르면 그때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된다. 이 평화협정에는 그 전쟁(남북전쟁)에 관련된 나라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해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승준 기자

기자 직접 지목하고 115분간 진행 ‘평화’ 주제 랩 노래, 엔딩곡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다양한 상황들이 연출돼 이목을 끌었다.

우선 문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때와 달리, 직접 사회자 역할을 도맡은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보조 진행을 맡았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기자회견 때와 같이 문 대통령이 질문자를 직접 지목하고 100분가량 일문일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타운홀 미팅으로 꾸며졌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출입기자는 내신 128명, 외신 52명으로 청와대는 집계했다.

문 대통령과 출입기자단간 일문일답이 이뤄지는 순간, 기자들은 질문권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기자는 ‘한복’을 입는 등 눈에 띄

는 복장을 입었고, 한 기자는 ‘책’을, 또 다른 기자는 ‘스마트폰’을 들기도 했다. 그만큼 일문일답이 열정적으로 진행됐다는 얘기다. 실제 이번 기자회견은 예정된 시간에 15분을 더해 진행되기도 했다.

한편 현장 분위기를 조율하는 배경음악(BGM)으로는 ▲김민기의 봉우리, ▲봄여름가을겨울의 브라보마이라이프, ▲커피소년의 내가니편이되어줄게,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대로, ▲그루벤틱 크루의 관촬아 등 총 5곡이 나왔다.

그중 처진달팽이와 그루벤틱 크루는 20대 젊은 뮤지션으로 분류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말하는대로 노래는 20대 청년들을 위한 선곡으로, 말하는대로 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현 정부의 다짐이 담겼다. 관촬아 노래는 대학생 래퍼로 이뤄진 힙합그룹과 청와대가 ‘평화’를 주제로 합작한 랩이다. 우리 삶 속에 ‘평화’를 더 깊게 새기는 한해가 되길 바라는 소망에서 선곡됐고, 이번 기자회견의 엔딩곡으로 사용됐다.

/우승준 기자